

광주시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하세요”

TV·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수거율 20~30% 불과 올 하반기부터 전용 분리함 설치... 처리사업 본격화

폐가전제품에 대한 수거 체계가 전면개편된다. 광주시와 자치구, 제조업체가 협약 맺어 자치구가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면 제조업체가 운반하거나 운반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폐가전제품 처리비를 일괄 부담하면서 무단방치되거나 집안에 보관해 놓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소형 가전제품이나 플라스틱 등 지금까지 쓰레기로 버려졌던 제품에 대한 재활용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3월 “을 초 자치구의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달 내로 자치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례를 개정한 뒤 폐가전제품 수거·처리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가정에서 배출된 가전제품을 자치구에서 집하장에 수거해 농민생산자가 선별장에서 리사이클링센터까지 운반하는 원스탑(One-stop)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들어있는 납, 수은, 염색 등 유해물질을 좀 더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철, 희귀금속

등의 자원을 회수해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그동안 이들 폐가전제품에 대한 수거 인프라가 미흡해 수거율이 각 제품별로 20~30%에 불과했으며, 판매점 위탁 처리, 중고 판매, 무단 배출 등의 방식으로 대부분 처리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형가전제품도 분리 수거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적정 배출방법이 없어 방치되거나 종량제봉투에 함께 버려졌던 휴대전화,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게임기, 헤어드라이기 등 폐소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무단 배출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형광등, 폐전선 등 유해제품에 대해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분리수거함 1474개소를 설치하고 일제 수거의 날을 운영, 지난해 폐형광등 163톤, 폐전선 53톤을 거둬들이고 있다. 폐금속 자원의 회수를 위해 범시민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방치되고 있는 2만6600여대의 휴대폰을 거둬 그 판매수익금 2000만원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탁하기도 했다.

또 재활용 수거 기포 품목이었던 잡매, 플라



한 시민이 주택가에 설치한 수거함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스틱, 1회용 필름·비닐류 등 기포품목에 대해서는 수집 장려금 2억4800만원을 책정해 아파트 부녀회 등에 지급했으며, 추후에는 자치구 재활용 선별장까지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제는 환경정책에도 폐러 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며, 기존 폐

기물이 버려지는 폐기물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폐기물이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폐기물을 질적·환경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으로 전환하는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환경이야기 <2>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실감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싼 물값때문이다. 우리나라 수도요금 1t당 610.2원으로 생산원가 777.2원의 78.5%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의 평균 수도요금인 2200원의 30%에도 못 미친다. 또 상수도 보급률이 97.7%에 이르러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의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유엔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기후변

물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의 근원일 뿐더러 물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

물 절약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공공하수 중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대형시설의 생활하수 고도처리를 통한 중수도 사용을 권장하며, 공장 폐수의 최소수로의 재사용 장려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물 절약 노후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136리터 가량의 물이 필요한 욕조사용보다는 50%이상 물이 절약되는 사

물은 생명이다

화, 인구증가, 1인당 물 수요 증가 등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연간 1인당 물 사용량이 1000m에 못 미치는 ‘물 부족’ 상황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물 분쟁은 이미 현실화되었다.

수단, 이집트, 우간다 등을 흐르는 나일강도 물 분쟁으로 조용한 날이 없으며, 중국은 메콩강 상류인 란창(瀾滄)강에 새로 댐을 건설하면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더욱 격렬한 전쟁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많지 않다.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가능한

위기를 사용하며, 또한 샤워 시간도 줄인다.

물을 받아 손씻거지를 하면 일회 평균 80리터를, 식기세척기를 이용하면 손씻거지 물 사용량의 50~80%까지 절약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물절약의 필요성과 그 노후를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물 부족에 대비해 나가는 지혜를 갖춰 선진적인 물 사용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계수
영산강환경청
총무과장

바닷물 온도 상승, 135년 전부터 시작

美 스크립스연구소, 해수 온난화 역사 2배 이상 길어

전세계의 바닷물 온도는 135년 전부터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해수 온난화의 역사가 생각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언스 데일리와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2일 보도했다.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과학자들은 지난 1872~1876년 사이 영국 해양조사선 헬린저호가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을 횡단하는 약 13만km의 여정에서 기록한 수온을 오늘날의 것과 비교해 이룬 사실을 발견했다고 네이처 기후변화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당시 헬린저호에 탑승한 200명의 선원들은 수압으로부터 보호되는 온도계를 이용, 한 지점의 여러 수심에서 수온을 재는 온도분포측정 작업을 300군데에서 실시해 최초의 전세계 수온 기록을 남겼다.

연구진은 전지구 해양변화 감시 프로젝트 ARGO에서 사용되는 3500개의 ‘ARGO 플로트’로 측정된 오늘날의 수온을 헬린저호의 기록

과 비교한 결과 수심 700m까지 상승부의 수온은 0.33도, 수심 900m의 수온은 0.12도 상승했음을 밝혀냈다. 수온 변화가 가장 큰 곳은 표층 수로 0.59도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학자들은 “이 연구의 중요성은 해수 온도 상승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 뿐 아니라 1870년대 이후의 상승폭이 지난 50년간 관찰된 것의 2배라는 사실”이라며 이는 대양 수온 상승이 지난 50년간의 현상이 아니라 최소한 100년간 일어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이 열팽창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지난 19세기부터 계속 상승해 온 해수면의 기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말했다.

이들은 “수온은 대양의 물리학적 상태를 가장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면서 지구의 에너지 분포 불균형 현상을 이해하는데도 이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30년 세계 물부족 인구 39억명 ‘심각’

지하수면 하강·수자원 고갈 원인... GDP 40% 투자해야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에 허덕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3일 기획재정부의 ‘물의 세계적 중요성 및 시사점’ 보고서는 2030년엔 지하수면 하강과 수자원 고갈로 물 부족 인구가 39억명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석유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가 폭 떨어지는 현상인 ‘피크 오일’에 대응한 ‘피크 워터’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만큼 물 부족 사태는 이미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농업용수가 지금보다 60% 높아야 20억 인구의 식량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도 내놓았다.

중국은 늘어난 식량 수요 때문에 농촌지역 상하수도시설을 짓는데 여념이 없다는 게 기재부의 전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정비할 여력도 없는데 최근에는 국제

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마저 줄고 있다.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질병 대부분은 물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이 평소 물 걱정을 하지 않는 한국도 ‘물 부족 대란’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물관리 종합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지금의 물 관련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국민총생산(GDP)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미국은 지금처럼 물을 쓰려면 20년간 매년 230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한다.

기재부는 상하수도, 해수담수화 시설 등 세계 물 시장 규모는 연평균 4.9% 성장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5년에는 규모가 8천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기재부는 “물 산업과 관련된 개발협력력을 늘리고 수자원산업 육성과 외국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벨기에 3월 기온 74년만에 가장 높아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유럽 서북부의 날씨가 갈수록 이상현상을 자주 보이고 있다.

벨기에 기상청은 지난 3월 평균기온이 13.3도로 1938년 이래 74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3월 기온이 예년 평균치보다 3도 높았을뿐만 아니라 일조량(166시간)도 평년(114시간)에 비해 훨씬 많은 반면 비나 눈이 내린 날(8일)은 평균치(18일)의 절반도 안됐다.

상청은 4월에는 예년보다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네덜란드 역시 지난 3월 평균기온이 8.3도로 지난 1957년 이래 최고치

를 기록했다. 남동부의 림부르크 지역에선 한달 최고기온이 20.8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서북부 지역의 경우 봄에 가장 높았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 10월 들어선 1백여 년 만의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돼 해변에 떠나게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일부 지역에선 들꽃들이 ‘여름이 온 것으로 착각해’ 이듬해 봄을 기다리지 않고 꽃을 다시 피우는 현상도 관측됐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하고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광일식당 동구 유림동 글로벌앞 한민백숙, 닭볶음, 전복삼계탕 단체예약 환영 대표 황성연 ☎ (062)228-2655	대박통신 북구 각화동 각화주공@정문앞 2층 KT,SK,LGU+각사 핸드폰및 스마트폰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번호이동 위약금 최대보상 상담환영 ☎(062)528-0525	송학 서구 치평동 1211-10 우체국 보훈회관 옆 2층 한정식 전문점 (1등맛집) 대표 김정호 ☎(062)382-8338	상무안마 서구 치평동 1250-5 조선의당 5층 스포츠 맛사지 전문 ☎ (062)376-3936	(주)빅인스보험법인 서구 매월동 동신물공관정입구 2층 207호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 의료비보험, 손해사정부 운영 대표 김영남 ☎(062)682-9339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 거리 기념품전문 판매점 대표 서대석 ☎(062)222-1936	김장열의청원모임 동구 황금동 78-9번지 50년 전통의 모임집 대표 김장열 ☎(062)223-6226	합동사 동구 남동 남동천주교옆길 편집·기획·팜플렛·즉석명함 스티커·기념패·칼리복사 대표 백종용 ☎(062)222-1762	행운정 남구 주월동 기업은행옆 생선모듬구이정식민어회갈치조림아구찜골뱅이 생선구이전문음식점 단체예약손님환영 대표 나영애 ☎(062)351-1500	웅궁아구찜 신창동 1201번지 부영@옆 꽃게찜·뽕찜·볶음 단체손님환영 ☎(062)952-9983	소통령 서구 치평동 1211-7 SK에너지앞 참숯화로구이, 소양,대창구이 전문점 대표 한성관 ☎1688-6692	성호꼬마김밥 양림동 기독교병원옆문앞광주은행 맞은편 고추김밥,참치김밥,갯김밥,모듬김밥,아메김밥 이참주문,단체주문환영 전화주문시 배달가능 ☎(062)673-5300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매매,무료강좌 고급표구,즉시판매점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중심사중앙식당총장포점 총장로2가 8번지 단체손님환영 ☎(062)228-1834	유학허브 동구 금남로2가 무등빌딩 5층 유학 전문기업 ☎(062)263-3434	양산갈비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거리 현대@입구 돼지갈비전문점, 소갈비, 생고기 단체예약손님환영 대표 전주영 ☎(062)576-8600	Canon(캐논)호남총판 북구 임동 오거리 소니매장건너편 DSCR,컴팩트카,악세사리 대표 김운수 ☎(062)383-3000	열린노무법인 광산구 쌍암동 694-10 한이름빌딩 302호 노동·인적자원관리 전문기관 대표 신규철 ☎(062)971-1528	상상생치킨(상상본점) 양림동 광주은행4거리 파리버게트 맞은편 닭강정,상상숙성치킨,후라이드치킨,양념치킨 상상 새우·과일·치즈떡 닭강정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062)652-3304
종로검정고시학원 대의동 71-4 전일빌딩뒤 문화전당바로옆 성년헌글반, 오전·오후·이강반 검정고시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원장 이재은 ☎(062)226-2227	제일헬스 광산구 월계동 부영1차앞 뒷밭옆 5층 4개월 10만원 대표 김중춘 ☎(062)973-4778	웃수선 동구 계림동 계림교회근처 이화기정의원옆 여성복, 남성복, 가족, 민코, 세무 수선 및 리폼 전문 ☎(062)224-5631	전라도맛집 남구 봉선동 그린산부인과옆 병어조림,갈치조림,생태탕,생갈치조림 오리로스오리탕,오리훈제 단체예약손님환영 ☎(062)651-8887	덕성약국 서구 월산로147-2 동신대 한방병원옆 친절하고 오래된 약국 약사 손판손 ☎(062)369-4213	통개 광산구 신창동 1211-5 지일빌딩 403호 대표 김지선 ☎(062)946-0800	건강한아침 동구 금남로 5가 남선빌딩 201호~204호 농성동에서 확장이전개업 대표 황세종 ☎(010)5584-5114